

장백산천지

제 173 호

2010년 8월 6일

금요일

법률을 제멋대로 짓밟는 죄악의 괴수

파룬궁수련생 로통(路通)은 2008년 12월 7일 소주시금창법원에서 불법적으로 4년 판결을 받은 후 그의 딸 로연(路燕)이 아버지를 위해 억울함을 소주시중급법원에 신소하여 이 안건을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소주시중급법원 청장 고웅경은 로연의 합법적인 요구를 얼버무려 넘기고나서 《법원은 공산당의 령도하에 있다. 내가 너에게 법률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 난 당신과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당신은 법률이 정치를 초월하고 탈리할 것을 바라지 말라.》、《신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안건은 죄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뻔뻔스레 말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현대사회는 법으로 사회를 다스리는 것만큼 법률은 도리상으로 보아 더없는 높은 지위가 있으며 사람들이 일체 공공사무와 사인사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준칙이다.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수뇌자로부터 보통백성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당과 조직을 망라하여 누구도 법률의 위에다 놓지 않으며 더욱 누구도 공개적으로 법률을 짓밟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다. 공산당의 독재 하에 더없이 높은 것은 법률이 아니라 당의 의지이고 당의 권력이다. 법률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공구이며 그들의 겉치레에 불과하다. 지금 공산당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자》는 구호를 높이 웨치지만 이것은 사람을 얼리는 수작이다. 소주중급법원 청장 고웅경이 지껄인 말이 바로 생동한 증명이 아닌가!

《법률은 당연히 공산당의 령도하에 있다.》

고 말하는 것은 법원에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최후결정은 법률조례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지시인 것이다. 만일 법률조례와 당의 지시지간에 모순충돌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당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네가 나에게 법률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 난 당신과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당신은 법률이 정치를 초월하고 탈리할 것을 바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법률은 정치의 제압을 받고 정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이다. 《신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안건은 죄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당이 시키는대로 해야 하고 위법해도 시정할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

모두어 말하면 중국에서는 당의 권리가 법률보다 더 크기에 사람마다 반드시 당에 충실히 해야 하며 당에서 불법적으로 “죄”를 씌워놓으면 법원에서는 죄가 있다고 판결해야 하고 누구도 그 판결에 대해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바로 공산당의 독재론리이다.

공산당이 1999년 7월 20일, 강택민은 파룬궁을 금지하고 탄압한 후 중국의 각급 법원에서는 중공의 지시에 따라 파룬궁의 신앙자유, 언론자유, 집회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쪐싼련을 수련하는 파룬궁학원들에게 “죄”를 씌우고 잔혹하게 박해를 감행하고 있다. 공산악당은 그야말로 법률을 제멋대로 짓밟는 죄악의 괴수이다. 중국공산독재체제가 존재하고 있는 한 법률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중국민중들은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고창조상을 받은 “대 법선”꽃차



지난 31일 저녁, 미국 시애틀시 중심에서 거행된 제 21 기해양절 해불대시 위행진에서 파룬궁학원들의 “대법선”꽃차는 영예롭게 최고창조상을 받았다.

박해로 세상뜬 파룬궁학원들을 애도



지난 22일 밤, 세계각지에서 온 수천 명 파룬궁학원들이 워싱턴기념비 앞

에서 초불로 “파룬따파”라고 새기고 중공의 박해로 억울히 세상뜬 파룬궁학원들을 애도했다.

지난 31일 저녁, 미국 시애틀시 중심에서 거행된 제 21 기해양절 해불대시

전 중공의 고급관원이 파룬궁을 인식하게 된 경력

최근에 명혜기자 상현(常賢)이 전 중공의 고급간부 소선생님(가명)을 채방했다.

기자: 선생님의 진실한 성명을 공개할수 있습니까?

소선생님: 나의 친구와 동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성명을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기자: 선생님은 파룬궁을 료해하고 있습니까?

소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파룬궁을 료해하지 못했지만 강택민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해서부터 나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몇몇 친구들이 나에게 파룬궁은 신체건강에 대해 좋은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2010년 천안문분신자살안건이 나타난후 나는 매우 많은 의문이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문광장은 어찌하여 그렇게도 쉽게 소화기를 사용할수 있겠습니까? 화상을 입은 환자들의 온몸에 왜 붕대를 감았는가? 기관을 절개한 꼬마 사영이 어찌하여 똑똑하고도 우렁차게 말을 할수 있습니까? 그 당시 의문이 있었지만 우리의 “위대한” 당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짓을 하리라고 생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기자: 이후에는요?

소선생님: 이후엔 나의 친구한테서 천안문분신자살의 진상을 폭로한 CD를 보았고 또 영화 “가짜불”을 보고 천안문분신자살안건은 강택민과 라간이 직접 구며낸 거짓연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상상 크나큰 충격을 받은 나는 한동안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다년간 줄곧 신뢰하던 공산당은 위낙 많은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더러운 물건짝 인줄을 몰랐습니다. 공산당이야말로 류망이고 깡패입니다. 난 격분을 참을수 없습니다! 기편당한 느낌으로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후부터 공산당에 대한 신임을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공산당에서 퇴출했습니다.

기자: 선생님은 파룬궁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할수 있습니까?

소선생님: 나는 리훙지선생님의 저작 <전법륜>을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수련을 지도하는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파룬궁은 성명쌍수의 상승불가공법으로서 박해전에는 중국에서 1 억이 넘는 사람들이 수련했고 지금은 100 여개 나라와 지구에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의 심각한 내포와 감화력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을 수련할수 있겠습니까?

기자: 소선생님은 고급관원이였는데 강택민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중국의 간부들중에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소선생님: 중국대륙에서 10년 문화대혁명을 겪은후 간부들이 중공에 대한 신임이 보편적으로 내려갔고 더욱히 극좌적인 것에 대해 아무런 흥취를 느끼지 못합니다. 강택민은 파룬궁을 탄압함에 있어서 정당한 리유가 없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있기에 파룬궁을 탄압하는 관련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정식문건을 하달하지 못했고 또한 문건번호가 없고 비밀번호전보(하달후 즉시 소각)를 내려보냈습니다. 강택민은 왜 가만히 비밀번호전보를 사용했겠습니까?! 실질상 그가 감히 정식문건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죄증이 남겨져 후날에 청산당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중국의 중, 상층간부들중 절대 대다수 사람들은 파룬궁에 대해 속으로 지지하고 동정하고 있으며 역울한 루명을 벗겨주는 것은 시간상 문제입니다. (파룬궁학원들은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악한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줄 자격이 없다.)

기자: 소선생님은 목전 중공의 전반 국면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할수 있습니까?

소선생님: 목전 중공은 경제방면에서 표면상으로 번화하고 태평한듯 걸치장하고 있지만 정치방면에서 파룬궁으로 인한 근심이 가득합니다. 목전 중국대륙에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그중 첫째는 파룬궁문제입니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로 조성한 일련의 문제는 중공이 최후 멸망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중의 두번째는 민중의 원한이 극히 치렬하고 농민이 땅을 잃고 로동자가 실업당하고 대학생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우며 통화팽창이 일어나고 탐관오리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중 세번째는 중국의 간부대오는 다스릴 방도가 없고 인심은 이미 흐트러졌으며 간부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량면수법을 쓰고 있는데 일면 상급과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응부하고 일면 뒤공론이 분분합니다. 일단 바람이 불어 풀이 움직이면 중공을 포기하는 것은 일조일석입니다. 중공의 상층인물들은 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민중과 자신을 기편하는데 불과합니다. 어찌 할바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중공이 넘어지면 중국은 긍정적으로 대란이 일어난다.》라고 거짓말을 꾸며대여 사람들을 놀래웁니다. 총적으로 중공의 미래와 출로는 한차례의 대변혁에 있습니다. 파룬궁이 중국에서 휘황함을 맞이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